

# 김직연의 연행기록『燕槎日錄』 『연행록』 비교연구

조양원

연세대학교 강사, 국문학 전공  
donquixote22@naver.com

- I. 머리말
- II. 김직연의 연행록 개관
- III. 한문본·한글본 연행록의 비교
- IV. 자료적 가치와 문학사적 의의
- V. 맷음말

## I. 머리말

근래에 들어 국가 혹은 문명 간의 문화교류와 문물교류 등이 관심을 받으면서, 국내외의 여러 학자가 우리의 燕行錄에 주목하고 있다.<sup>1)</sup> 현재 까지 발굴된 연행록만 하더라도 실로 방대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나, 연행의 횟수와 연행에 참가한 문인들의 비율을 볼 때, 추후 추가 발굴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같은 저자의 이본을 다른 저자의 다른 작품으로 오편하거나 저자를 비정하지 못하여 미상 작품이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지금까지 발굴된 연행록은 약 600여 종으로 추산된다.<sup>2)</sup> 근래 10여 년 동안 연행록과 관련된 연구가 수백 편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자료의 방대함에 미루어보면 기존의 연구 성과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연행록과 관련한 연구는 학계의 각 분야에서 꾸준히 진행될 것이며, 보다 훌륭한 성과물이 축적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축적된 수많은 연구 성과 중, 유독 한문본 연행록과 한글본 연행록을 비교하여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문본 연행록과 한글본 연행록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의 一端으로, 金直淵의 연행록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행록 관련 연구에서 한문본과 한글본을 비교한 경우는 연구논문 몇 편에 불과하다. 그것도 洪大容(1731-1783)의 연행록인 『湛軒燕記』와 『乙丙燕行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연행록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김태준<sup>3)</sup>은 홍대용이 정녀묘를 소재로 쓴 시의 원문과 번역을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세밀하게 비교·고찰하였고, 소재영·조규익<sup>4)</sup>은 두 본의 연행록 중 어떤 작품이

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2008년 『燕行錄選集補遺』의 출간에 이어, 중국의 復旦大學校 文史研究院과 함께 『韓國漢文燕行錄選集』을 간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의 廣西師範大學에서 弘華文 교수가 『燕行錄全編』(12책)을 2010년 출간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復旦大의 王振忠 교수와 浙江大의 楊雨蕾 교수도 연행록 관련 논문을 수편씩 발표하고 있다. 김영진, 「燕行錄의 체계적 정리 및 연구 방법에 대한 試論」, 『대동한문학회지』 34집(대동한문학회, 2011); 홍성구, 「중국학계의 연행록 연구」, 『대동한문학회지』 34집(대동한문학회, 2011) 참조.

2) 김영진, 「夫馬進著 燕行使と通信使」, 『東洋史研究』 67-4(2009), 145쪽 참조(홍성구, 위의 논문, 2011, 주석 9번에서 재인용).

3) 김태준, 『『담현연기』와 『을병연행록』 비교연구』, 『민족문화』 제11집(1987).

선행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각 수용계층의 관심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라고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정훈식<sup>5)</sup>은 홍대용 연행록의 구성 방식과 의도를 살펴 두 본이 각 수용계층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평가했으며, 주우진<sup>6)</sup>은 홍대용의 글쓰기 방식에 주목하여 『담헌연기』와 『을병연행록』의 서술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모색하고, 독자층에 따라 의도적으로 글쓰기 양상이 달라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그 대상이 홍대용의 연행록에만 한정되어, 한문본·한글본 비교의 본격적인 연구로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그중에서도 두 편의 논문은 주된 논의가 아닌 부분적인 논의라는 사실도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한편 김직연의 연행록에 대한 연구 성과도 발표된 바 있어 주목된다. 김근태<sup>7)</sup>는 김직연의 한문본 연행록 『燕槎錄』과 한글본 연행록 『연횡록』의 서술 방식을 비교 고찰하고, 두 본의 특징적 면모를 살폈다. 그러나 생애 및 시사 활동 등의 작가론에 너무 치중하여 연행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편이며, 한문본·한글본 연행록의 몇 가지 특징만을 언급하는 것에 그쳐, 서술 방식의 본격적인 비교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김직연의 연행록은 이미 기존에 『燕槎日錄』으로 소개된 바 있으나<sup>8)</sup>, 근래에 들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자료이다.<sup>9)</sup> 연행록 관련 연구가 재조명되고 있는 현 시점에<sup>10)</sup> 연행록 전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이 글과 같은 한문본·한글본 연행록의 비교연구

- 
- 4) 소재영·조규익, 「담헌연행록연구」, 『동방학지』 97(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8).
  - 5) 정훈식, 「홍대용의 연행록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7).
  - 6) 주우진, 「洪大容의 『燕記』와 『乙丙燕行錄』比較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0).
  - 7) 김근태, 「김직연의 『燕槎錄』과 『연횡록』의 서술 방식 비교」, 제96차 대동한문학회 발표문(2011. 4. 30).
  - 8) 임기중·부마진, 『연행록전집』 일본소장편(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1).
  - 9)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신익철 교수가 『燕槎日錄』의 번역본을 출간하였고(김직연 저, 신익철 역, 『燕槎日錄』, 『의왕향토사료관 번역총서』 1, 의왕향토사료관, 2011), 한국외대의 김근태 박사가 논문(앞의 논문, 2011)을 한 편 발표한 바 있다.
  - 10) 근래 대동한문학회에서는 '연행록 연구의 현황과 전망'(제96차 대동한문학회, 2011. 4. 30)이라는 주제로 6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는 '북경 유리창과 한중지식 교류'(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09. 11. 28)라는 주제로 9편의 논문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에서는 '연행록을 통해 본 한중 문화교류의 양상'(어문생활사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9. 10. 30)이라는 주제로 3편의 논문을 각각 발표하였다.

도 이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직연의 한문본·한글본 연행록을 저본으로 삼아 그 특징적 면모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선행본을 고증하는 한편 구체적인 독자층을 究明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발표된 연구를 참고하되, 기존 연구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sup>11)</sup> 또한 김직연의 연행록에만 그치지 않고 영역을 확장시켜, 한문본·한글본 연행록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와 그 자료적 가치에 대해 궁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II. 김직연의 연행록 개관

김직연(1811-1884, 순조 11-고종 21)은 청풍김씨 仁伯派로 字는 景直, 號는 品山이다.<sup>12)</sup> 1846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 사헌부 감찰, 승지, 병조참의 등을 역임하고 대사성에 오른 인물로, 遺稿로는 현재 『品山謾筆』이 전하고 있다.<sup>13)</sup> 김직연의 문집과 연행록은 최근(2005년)에 발견되었는데, 의왕시사편찬위원회에서 시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수집되어 『義王市史』에 수록되었다.<sup>14)</sup> 그러나 아직까지 문인으로서의 김직연과 사료로서 그의 저작에 대해 학계의 연구는 아직 미진한 형편으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sup>15)</sup>

김직연의 연행기록인 『燕槎日錄』은 일본 도쿄도립도서관 소장본이 기존에 소개된 바 있으나<sup>16)</sup>, 근래 김직연의 저서가 발굴되면서 『연시일록』

11) 김근태 박사의 논문(앞의 논문, 2011)이 발표될 때, 필자가 이에 대해 토론한 바 있다. 당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부분이 많았던 까닭에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다른 의견과 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노파심에 離言을 붙이자면 필자 또한 김직연의 연행록에 관심을 갖고 한문본과 한글본의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꾸리던 중 토론자로 섭외되었음을 밝힌다.

12) 朴周大 편저, 『縉紳八世譜』 文科編(경인문화사, 1983) 참조.

13) 김직연의 생애는 김근태의 선행연구(앞의 논문, 2011)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14) 『의왕시사』 4권, 2편 2장 1절, <문화예술활동> 1, 문학 319-340(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 6. 30); 『의왕시사』, 제6권 자료집, 제5편 <전근대문학> 제3장 「연행록」(2007. 6. 30)[김근태, 앞의 논문(2011), 주석 2번 재인용].

15) 현재까지 김직연과 관련된 연구는 의왕시에서 진행한 시사편찬에 부분적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의왕시사』(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 김근태, 「品山(金直淵)이 읊은 팔경 시와 세시풍속시에 대하여」, 『의왕의 삶터와 발자취』(2004).

16) 임기중·부마진, 앞의 책.

의 국내본 몇 종이 새로이 소개되었다. 별책으로 꾸려진 『燕槎日錄』(3권 2책)과 『품산만필』 18-20권에 수록된 『燕槎錄』(3권 3책), 그리고 역시 별책으로 뚫인 한글본 『연횡녹』(3권 2책) 등이다. 따라서 한문본 『燕槎日錄』은 3종이 현존하는 셈이며, 한글본은 1종이 현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문본 중 일본 도쿄도립도서관 소장본(3권 3책)과 국내별책본(3권 2책)은 内題가 『燕槎日錄』으로 되어 있고, 『품산만필』에 수록된 한문본은 내제가 『燕槎錄』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sup>17)</sup>

이 글에서 저본으로 삼은 것은 한문본 국내별책본(3권 2책)(이하 한문본)과 한글본 『연횡녹』(이하 한글본)이다. 한문본과 한글본의 체재는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두 본 모두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은 조선을 출발하여 북경에 도착하기까지의 기록이고, 중권은 북경에서 체류하다가 귀국 노정에 오르기 직전까지의 기록이며, 하권은 귀국하여 경기감영의 賓官에 도착하여 복명하기까지의 기록이다. 두 본 모두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되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전체 연행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1858년(철종 9) 10월 26일 熙政堂에 入侍하여 임금의 하교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 20일 희정당에서 임금과 문답한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 기록의 후반부에는 <別單>을 첨부하여 연행 기록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는데, 승정원에 올린 <聞見別單>을 그대로 옮겨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별단의 뒷부분에는 <聞見事件>를 덧붙여 보고 들은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는데, 애초 연행을 떠날 당시 '적도의 동정과 농사의 풍흉을 탐지해 오라'<sup>18)</sup>는 하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어진 마지막 부분은 <聞見雜識>로 저자 자신이 느낀 감흥과 여러 경험담을 술회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한문본과 한글본이 동일하다.

17) 신익철은 일본 도쿄도립도서관 소장본(3권 3책)과 국내별책본(3권 2책)은 저자가 말년에 정리한 것으로, 『품산만필』 수록본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저작으로 추정된다고 하였고, 번역은 국내별책본(3권 2책)을 저본으로 삼은 까닭에 번역서의 제목으로 『연사 일록』이라는 제명을 취했다고 밝혔다. 김직연 저, 신익철 역, 앞의 책 <번역을 마치면서> 참조.

18) 金直淵, 『燕槎日錄』上, 10月 26日條. (이하 한문본) “入侍于熙政堂, 上曰‘賦匪動靜與年形豐歉, 詳探以來’. 三使起伏, 上使奏曰‘謹當廣探奏達矣’.”

김직연, 『연횡녹』 상, 10월 26일조. (이하 한글본) “희정당(熙政堂)의 입시(入侍) 흐니, 상(上)이 『각로스티』 ‘난리동정[賦匪動靜]과 년형풍흉(年形豐歉)을 조시 탐지해오라.’ 삼수신(三使臣)이 기복(起伏) 쥬(奏) 왈(曰) ‘널니 탐지(探知)해여 쥬달(奏達)해오리이다.’”

다만 한글본의 경우 수창한 시의 전문이나 공문서의 내용, 편액이나 비석에 대한 설명 등이 약술되거나 생략되어 있다.<sup>19)</sup>

연행단의 규모는 310명의 인원과 105필의 마필이 동원되었으며, 正使는 李根友(1801-?), 副使는 金永爵(1802-1868)<sup>20)</sup>이었으며, 김직연은 書狀官으로 참여하였다.<sup>21)</sup> 노정은 다음과 같다. 1858년 10월 27일 한양을 출발하고, 11월 26일 渡江하여 다음날 棚門에 이르렀다. 이어 12월 6일 濬陽을 거쳐 12월 17일 山海關을 통과하였고, 12월 25일 北京에 도착하여 38일을 머물렀다. 돌아오는 노정은 1859년 2월 4일 북경을 출발하여 2월 12일 산해관에 도착했고, 2월 21일 심양을 거쳐 2월 26일에는 책문에 이르렀으며, 3월 3일 압록강을 건너 3월 20일 한양에 입성하였다. 총 98일이 소요된 여행으로, 한문본은 250쪽, 한글본은 24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기록이다.<sup>22)</sup>

김직연의 연행록 중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19세기 중반까지도 사대부들에게 明에 대한 의리와 중화주의의 인식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三使가 三拜九叩의 예를 행하는데, 땅에는 둋자리를 깔지 않아 흙먼지가 옷에 기득했다. 啊! 만약 伯夷가 이 일을 당했다면 반드시 朝衣와 朝冠을 입고 흙바닥에 앉지 않았을 것인데, 하물며 임금이 아닌 이를 임금으로 모셔야 함에 있어서라! 그리고 또 저 붉은 모자는 예에 맞는 관도 아니니, 어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지 않았으랴. 啊!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랑캐에게 무릎을 끓은 일이 어찌 원통하지만 事勢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한 번 무릎을 끓고 펼쳐보지 못한 지가 벌써 200여 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데 익숙해져서 원통한 것이 무엇인지도 더 이상 알지 못한 채 의당 행해야 할 예로 여기게 되었다. 더러운 흙바닥에서 공경히 절하며 조아려야 하니 생각해보면 百世의 스승에게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번에 돌아가는

19) 이와 관련해서는 이 글의 후반부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0) 김영작의 연행과 청나라 문인들과의 교유에 대해서는 김명호 교수의 논문(「金永爵의 燕行과 『燕臺瓊瓜錄』,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에 상세하다(김근태, 앞의 논문, 2011, 주석 26번 채인용).

21) 한문본의 상권 마지막과 하권 마지막에 수록된 <行中員錄>을 참조하면 이 연행단에 참여한 인물을 알 수 있다. 한글본에는 <행중원록>의 일부 인물들만 기록되어 있는데, 의도적인 것인지 결락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22) 한글본에는 欄外에 소제목이 써어 있어 내용파악이 용이하다. 예컨대 기사 윗부분에 '의주', '요동성', '네부', '죠회반렬', '정양문' 등이 적혀 있는 경우이다.

길에는 내가 감히 清節祠에 다시 참배하지 못할 것이다.<sup>23)</sup>

북경에 도착한 이튿날인 12월 26일 기사이다. 청나라 황제를 배알하고 三拜九叩頭禮를 행하면서 느낀 울분을 토로하는 한편, 伯夷와 叔齊를 모신 사당인 清節祠에 다시는 참배하지 못할 것이라 자책하고 있다. 19세기 중반이 넘어서던 당시까지 對清의식이 청 초기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점은, 청나라를 패권국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문물을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18세기의 연행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물론 이는 개인의 역사관과 가치관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다. 다만 개화의 물결이 조선에 미치던 19세기 후반까지 사대부들의 의식에는 아직도 오랑캐라는 멸시와 그들에게 무릎을 끓어야 하는 현실에 원통함을 느낄 만큼 대청의식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특기할 만하다.

두 번째는 타 연행록에 비해 지리 정보가 매우 상세하고 또 이를 고증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이에 대한 저자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연행한 자가 간혹 수십 번에 달하는 자가 있는데, 경유한 거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몇 리이다’라는 식으로 기록하여 외우는 것처럼 천편일률적이다. 도착했다고 하지만 그곳이 어느 省 어느 州에 속하는지 물어보면 구분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내가 지나온 곳이 어느 주 어느 縣에 속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아 하니하나 기록해두었다. 대개 山海關 바깥은 1,350里

23) 한문본, 12월 26일조. “三使行三拜九叩之禮 地不舖席 塵土滿衣. 哀乎 若使伯夷當之 則必不肯以朝衣朝冠坐於塗炭也 況可非其君而事之乎. 況彼紅帽 不啻如不正之冠 則又豈不望望然去之乎. 呴呼 我人之屈膝於夷虜 豈不曰忍痛含冤 迫不得已 而一屈不伸 二百又餘年. 於今則目稔耳熟 不復知痛冤之爲何事 看作當行之禮 而僕僕拜跪於塗炭之中 顧不覩然有愧於百世之師乎. 今行之歸 吾不敢復拜於清節祠矣.”

한글본, 12월 26일조. “삼신이 세번 절하고 아홉번 고두(叩頭)하는례(禮)를 행(行) 흔니 짜의 주리를 깔지 아니하여 흙이 옷체 가득한지라. 초회라. 맹조(孟子) ㅋ르스듸 빅이(伯夷)는 그 인군(人君)이 아니면 셈기지 아니하고 그쁜 것을 보면 죄복(朝服)으로 진흙의 안준 것 갖치 녀긴다하시니 이제 만일 빅이로 당혹면 반드시 관복으로 흙짜의 안씨 아니흘거시니 흙물며 그 임군아니니를 삼기랴. 오회라. 우리스름이 호인(胡人)의 게 무릎굽힘이 엇지 가르디 원통함을 참고 박부득이(迫不得已) 혼일이라 아니하리오 마는 혼 번 굽히고 퍼지 못한지 이빅여년의 이제와서는 눈의 익고 귀의 젓져 다시 통원(痛冤)한 줄도 모로고 당연한례(禮)로 보아 흙 가온디 절하고 썰어 안즈니 엇지 빅이(伯夷)네 봇그렵지 아니하리오. 도라갈길의 감히 다시 청절소(淸節祠)에 절하지 못하리라.”

[이하 한문본의 번역은 신익철 교수의 번역서(김직연 저, 신익철 역, 앞의 책)를 참조하였다].

인데 州·縣·城·屯이 되는 것이 7곳일 뿐이고, 山海關 이내는 670里인데 州나 縣이 되는 것은 14곳이다. 이에 중국의 강역이 山海關 안팎으로 구분하여 州·縣이 드물고 빼빼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4)</sup>

저자는 여행을 떠나기 전, 이미 타 여행록을 상당히 독서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다른 여행록이 모두 지리 정보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산술적인 거리와 州·縣의 명칭에는 익숙하지만, 어느 省이 어느 州에 속하는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편상적인 정보만 외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직연의 여행록은 다른 여행록과는 달리 지리 정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당일 이동한 거리<sup>25)</sup>는 물론 역참과 주요 지역 간의 거리<sup>26)</sup>를 상세히 기록하였고, 구체적인 문현을 인용하여 각 지역의 명칭과 유래, 지리 정보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sup>27)</sup>

24) 한문본, 상권 12월 25일조. 뒷부분(상권 마지막 부분). “我人之燕行者 或至屢十遭 所經道里之自某至某 爲若千里 則莫不如誦。已言至 問某地之屬於何省何州 則莫有能辨之者。故凡於所經處 詳探某州某縣之界 而一一錄之。蓋由山海關外一千三百五十里 而為州而縣而城而屯者 七而已 由山海關內六百七十里 而為州而縣者 凡十四 可見其疆域有內外之分 而州縣有疏數之別矣。”

한글본, 상권 12월 25일조. 뒷부분(상권 마지막 부분). “우리나라 스릅이 연횡(燕行)하는 이가 혹 누십년을 헤마다 다니기로 지나는 길 멀고 갓가온 낫수(里數)는 모로는 이 업스되 아모 짜히 아모 고을의 속(屬)하고 그 짜의 옛 습적(史蹟)은 무엇신지 헌나 아는 이 업는지라 지나는 곳마다 고을 지경 칙탐(採探)하여 일일이 기록(記錄)하고 대개 산하관(山海關) 뒷기 일천 삼백 오십 니(里)의 큰 고을 적은 고을 성(城)과 둔(屯) 이 일곱센이오 산하관(山海關) 안히 뉙박 칠십 니(里)의 큰 고을 적은 고을이 열 네히니 짜 지경(地境)이 관내(關內)와 다르고 고을 마련이 규모 인는 것술 불너라.”

25) 당일 기록한 기사 내용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한문본은 “是日通行○○○里”라고 기록하였고, 한글본은 “이날 ○○○니(里) 횡(行)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26) 한문본, 11월 27일조. “乾浦三里 細浦七里 柳田二里 湯站九里。 [...] 蔥秀站三里 魚龍堆一里 車駁獐項四里” 이러한 지리적 상세 정보는 한글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27) 한문본, 11월 26일조. 按『唐書』高麗馬訾水 出靺鞨之白山 西南流 過安市入海。水色如鴨頭 故名鴨綠江。『皇明志』亦云 鴨綠江 一名馬訾水 源出長白山 西南流 與鹽難水合 南入海。『地志』云 長白山 在故會寧府南六十里 橫亘千里 高二百里 其顛有潭 周八十里。南流為鴨綠江 北流為混同江 東流為阿也苦河。所謂長白山 卽今白頭山也。安市則鴨水下流 別有其名矣。

한글본, 11월 26일조. “『당서(唐書)』의 일년시되 압녹강(鴨綠江) 근본(根本) 일홈은 마즈쉬(馬訾水)니 물벗히 오리머리 갓기로 일홈을 압녹강이라하고 『황명지(皇明志)』의 일년시되 압녹강이 장벽산(長白山)의서 나 남(南)으로 흘너 바다로 드러간다하고 『지지(地志)』의 일년시되 장벽산이 회령(會寧) 남(南)의 잇소니 천니(千里)를 빼치고 높기 니박니(二百里)오 우히 못잇서 주회(周回) 팔십니(八十里)니 남(南)으로 흘너 압녹강(鴨綠江)이 되다하니 장벽산은 지금 빅두산(白頭山)일너라.”

### III. 한문본·한글본 연행록의 비교

전술한 바와 같이 김직연의 한문본·한글본 연행록은 그 내용이나 체재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저자가 일반적인 연행기록이라 할 수 있는 한문본 외에 한글본도 남겼다는 사실은, 한글본 텍스트의 내용과 창작동기 및 독자층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한다. 또한 한문본을 창작하고, 한글본으로 번역한 것인지, 두 본을 각기 따로 창작한 것인지, 오히려 한글본을 먼저 창작하고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그렇다면 두 본의 연행록이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각각 살펴보고, 텍스트에 드러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어떤 본이 선행본인지 구명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편린처럼 흩어진 단서를 토대로, 주 독자층은 어떤 계층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한문본·한글본의 관계 검토

##### 1) 한문본의 특징 검토

김직연 연행록의 한문본은 한글본에 비해 분량이 많은 편이다. 같은 내용을 각각 한문과 한글로 기술할 경우, 한글본의 분량이 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한문본의 분량이 더 많다는 사실에서 그만큼 내용이 더 풍부함을 알 수 있다. 일단 수록된 내용 면에서 한문본은 한글본에 비해 세세하면서도 폭넓은 편이다. 같은 내용이 두 본에 모두 수록된 경우에는 한문본이 한글본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었으며, 한글본에 아예 생략된 부분도 한문본에는 상당한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다.

두 본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며, 한문본의 특징이라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다.<sup>28)</sup> 첫째, 삽입된 시문과 편액 및 비석의 내용

28) 선행연구(김근태, 2011)에서는 한문본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객관적 기록으로 날짜, 日氣, 노정, 견문 등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점, 둘째, 문헌과 구전을 통한 인용이 빈번하다는 점, 셋째, 한시문을 빈번하게 수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글 본과의 대비를 통해 한문본만의 특징이라는 논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이 없어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문본과 한글본의 가장 큰 차이로 한문본은 '날짜 중심', '공적인 기록'이며, 한글본은 '내용 중심', '사적인 기록'이라 주장하였으나, 한글본 역시 날짜순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과, 근거자료로 들었던 한글본 11월 22일의 기사 중, 시문을 생략하는 과정에서 날짜까지 생략되는 오류에 대해, 작자의 의도가 가미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까닭에 '내용 중심'이라 오해한

등이 한글본에는 대폭 축약되거나 생략된 반면, 한문본에는 빠짐없이 모두 수록되었다는 사실이다. 김직연은 연행 도중 많은 시를 창작하였으며, 부사 등과 수창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이 창작한 시가 아니더라도 연행록에 모두 꼼꼼히 기록할 정도로 수록된 시문을 매우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김직연은 노정 중에 들르는 사당과 사찰, 관문과 누각 등에 쓰여 있는 편액과 비석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현판에 쓰인 내용과 서체, 서법 등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문헌을 인용하면서 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먼저 수록된 시문을 검토해보도록 하자. 김직연은 연행 중 많은 시를 창작하여 기록했는데, 한문본에는 자신이 지은 시는 물론, 副使가 기생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지은 송별시<sup>29)</sup>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본에는 자신이 직접 지은 시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상당한 분량의 시가 생략되고 몇 수의 시로 한정되어 수록되었다.

상수(上使)는 스인교(四人轎)라고 부수(副使)와 셔장(書狀)은 싱교(纏轎)라고 강을 것녀려하니 의주(義州) 관속(官屬)들이 분분이 하직하서늘 섭섭하기 마지아니하니 평생(平生)의 모로던 하인의게 정념이잇셔 그러함이 아니라 나라지경을 써나가는 회포(懷抱) 즐연이 슬푸고 감동하여 초목산천(草木山川)이라도 경을 먹음지 아낫는듸 업스니 무정(無情)흔 물도 그러하거든 흐물며 유정(有情)흔 스름이라 흔 절귀(絕句)를 읊페 왈 도선스즈거하지(朝鮮使者去何之) 【죠선 스신이 어듸로 가는노】 죠석비가압수두(祖席 30) 悲謫鴨水湄 【여나는 자리 슬픈 노락】 압녹강 가히로다】 일도초강비아계(一渡此江非我界) 【한번 이 강을 것녀면 우리 나라 싸이 아니라】 성초님발즈지지(星轎<sup>31)</sup>臨發自遲遲) 【스신의 슈레 써나기 님 흐여 스스로 더티고 더티도대】 [...] 갈색가 들의 가득하고 그 속으로 길이 낫시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적인 내용'은 오히려 한문본에 더 빈번하다는 사실도 간과했다고 생각된다(문제의 11월 22일 기사는 이 글의 3) 선행본 고증에서 살펴볼 것이며, '사적인 내용'이 한문본에 더 빈번하다는 점은 2) 한글본의 특징 검토에서 자세히 밝힐도록 하겠다).

29) 한문본, 11월 9일조. “副使口傳一絕云 在平壤時房妓弄玉到 又陽關送別 故題其紅帕而贈之 曰 ‘陽關寒天駐使輶, 多情少妓整雲翹. 禪心恐着三桑戀, 萝斷秦樓月下簫.’ 道中就次曰 ‘又陽關外走星輶, 出餞紅娥幾寶翹. 佇看秦樓回過日, 天風吹送月中簫.’” 이 내용은 한문본에만 수록되어 있다.

30) 祖席은 道神에게 면 여행길에 무사하기를 비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가리킨다. 흔히 떠나가는 사람을 위해 전송하면서 베푸는 잔치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韓愈의 <祖席詩>에 “洛橋에 송별연을 베푸니, 다정한 친구 서로 슬퍼하네”라고 하였다.

31) 星輶는 使者가 탄 수레를 말한다. 唐나라 白居易의 시에 “아침 바람 불어와 거리에 가득하니 驛騎와 星輶가 다 빨리 달리누나(早風吹土滿長街 驛騎星輶盡疾驅)”라고 하였다.

눈을 드러보미 더욱 황낭(荒涼)하여 슈탄(愁嘆)함을 겸치 못할지라 혼 절귀를  
을펴 왈 황무일망평(荒蕪一望平) 【것친 풀이 비라보기 평하니】 미경개여선(微經開  
如線) 【적은 길이 실갓치 낫도다】 인지노중어(人在蘆中語) 【스름이 갈디가 온드】  
셔 말하니】 노심인불견(蘆深人不見) 【갈대가 김펴 스름은 보지 못할너라】 구련  
성 십 오리가니 금나라 씩 고려 막기 위하여 성을 쓰아 명나라 씩 진강부(鎮江府)  
아문(衙門)되니 즉금 그 성터히 풀속의 잇더라 쪼 절귀(絕句)를 을펴 왈 난슈총아쇠  
초영(亂樹層峨衰草繁) 【어즈러운 나무 총총이 놓고 쇠흘풀이 얼겼시니】 헝인지점  
구련성(行人指點九連城) 【헝인이 구련성을 지점하더라】 가련누누진증골(可憐纍  
纍塵中骨) 【가히 불상하다 누누흔 씨끌 가온드 췌기】 진시당년선전병(盡是當年善  
戰兵) 【다 이 당년의 잘 싸오던 군스로다】<sup>32)</sup>

삽입시가 한글본에 수록된 경우이다. 한자어의 발음을 한글로 적고,  
시문의 아래쪽에 小字雙行으로 번역도 아울러 싣고 있다.<sup>33)</sup> 물론 인용문  
에 수록된 시는 모두 한문본에도 수록되어 있다. 다만 마지막 삽입시의  
경우 한문본에는 ‘또 절구 2수를 지었다(又吟二絕)’라고 하여, 위 시에  
이어 또 한 수의 7언 절구를 수록하고 있으나<sup>34)</sup>, 한글본에는 한 수만을  
수록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한글본에는 시문이 수록된 경우에도  
전체 시의 일부만을 수록하는 등, 한문본에 비해 삽입시의 빈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한문본에 수록된 시가 한글본에 드물게 수록되었다는  
사실은, 저자 스스로 특별히 선별하고 득의한 작품만을 수록했으리라  
짐작하게 만든다.

삽입된 시문 외에 편액과 비석, 柱聯에 대해 기록한 부분 역시 한글본에  
는 간략하게 언급되는 반면, 한문본에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연행이 늘상 그러했듯 김직연 역시 가능한 한 많은 곳에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보고 느낀 바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당과 누각  
등에 걸려 있는 편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씌어 있는 글자와 의미를  
모두 기록했으며, 서법의 주인과 서체까지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한문본에만 국한된 것으로, 한글본에는 이와 같은

32) 한글본, 11월 26일조(【】는 원문에 小字雙行으로 씌어 있는 原詩의 번역문이다).

33) 한시의 한글음을 한 구씩 행을 바꾸어 쓰고, 각 구 아래에 小字雙行으로 번역을 적는  
방식은 한글본 서체 중 번역된 한시가 삽입되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서정민, 「삼강명행  
록의 교양서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28(한국고전문학회, 2005); 이종묵, 「조선시대  
한시 번역의 전통과 양상」, 『장서각』 7(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참조.

34) 한문본에만 수록된 다른 한 수의 시는 다음과 같다. “修我兵戈築我城, 民生安業足昇平.  
如何捲起中原土, 遼左紛紛事戰爭.”(한문본, 11월 26일조).

기록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대들보 위에 ‘統軍亭’이란 석자가 큰 글씨로 써어 있었는데, 承旨 宋祥來의 글씨이다. 곁에 있는 작은 액자에는 八分體<sup>35)</sup>로 ‘통군정’이라 써어 있는데, 고려 때 걸어놓은 것 같으나 누구의 글씨인지는 알 수 없었다.<sup>36)</sup>

위의 내용 역시 한글본에는 생략된 경우이다. 또 한문본의 “편액에 ‘○○○○’라 써어 있다”<sup>37)</sup>라는 정도의 짧은 언급은 한글본에서는 대부분 생략되어 있으며, 작자와 서체 등을 품평한 내용도 없다. 혹 방문한 곳이 사당인 경우, 이를 묘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편액과 비석, 주련 등도 한문본과 한글본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편에 비석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廟碑記’라 하였고, 두 번째는 ‘香火碑’라 하였으며, 흰 돌로 섬돌을 둘러 난간을 만들어놓았다. 가운데에 정전이 있는데, 문 위의 편액에는 ‘百世之師’라 하였고, 안의 門楣에는 ‘古之賢人’이라 하였다. 좌우에 큰 글씨로 써놓았는데, ‘萬世標準’이라 한 것은 강희제의 글씨이고, ‘倫常師範’이라 한 것은 옹정제의 글씨이다. 그 밖에 또 ‘民之父母’, ‘澤流孤竹’이라 써어진 것도 있다. 주련에는 “仁을 구하여 仁을 이루었으니 만고토록 맑은 바람 부는孤竹國이요, 포악함으로 포악함을 바꾸었으니 천추의 높은 절개 수양산이로구나(求仁得仁 萬古清風孤竹國 以暴易暴 千秋高節首陽山)”라고 써어 있다. 동쪽 벽에는 乾隆帝와 嘉慶帝의 시가 적혀 있고, 서쪽 벽에는 건륭제와 道光帝의 시가 적혀 있다.<sup>38)</sup>

서(西)의 비(碑) 세히 셔고 흰 돌노 섬돌을 둘러 난간(欄杆)하고 가온드(正殿)잇스니 문 우(右) 현판과 좌우의 쥬련(柱聯)과 건륭(乾隆)과 가경(嘉慶)과 도광(道光) 황제(皇帝) 글 식인 비가 무수(無數)하여 이루 기록지 못할너라.<sup>39)</sup>

35) 八分體는 서체의 종류 가운데 漢代의 隸書를 일컫는 말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서에 전서의 형태가 八分 남아 있고 二分이 변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컫는다고 한다.

36) 한문본, 11월 22일조. “樑上大書‘統軍亭’三字 宋承旨祥來筆. 傍有小扁八分書統軍亭 似高麗時所揭 而未知誰人筆.” 이 부분은 한문본에만 수록되어 있다.

37) 한문본, 12월 25일조. “額曰‘藝館培英.’”; 한문본, 12월 26일조. “額曰‘寅清贊化.’”; 한문본, 12월 27일조. “額曰‘肅贊朝儀.’”; 한문본, 12월 28일조. “額曰‘秀巖.’” 등.

38) 한문본, 12월 20일조. “西有三碑 一曰廟碑記 二曰香火碑 白石繞階爲欄 中有正殿 門上扁‘百世之師’ 門內楣曰‘古之賢人’ 左右大書‘萬世標準’者 康熙帝筆也 ‘倫常師範’者 雍正帝筆也. 又曰‘民之父母’ 曰‘澤流孤竹’ 柱聯曰‘求仁得仁 萬古清風孤竹國 以暴易暴 千秋高節首陽山. 東壁有乾隆嘉慶帝詩 西壁有乾隆道光帝詩.’”

12월 20일 漢河에 이르렀을 때 방문한 清聖祠를 묘사한 부분이다. 한문본에서는 인용된 부분 외에도 郭門에 쓰인 현판과 門楣마다 써어 있는 편액에 대해서 모두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본에서는 간략한 설명 외에 ‘무수호여 이루 기록지 못할너라’라고 하며 둥뚱그려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편액과 비석에 쓰인 글자와 서체, 서법 등에 관한 설명이 한문본과 한글본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다.

한문본 연행록의 또 다른 특징은 구체적인 문현을 인용하여 각 지방의 사적과 역사적 사건, 지리 정보 등을 상세히 고증하고 있다는 점이다.<sup>40)</sup> 물론 문현을 인용한 부분은 한글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sup>41)</sup>, 인용의 빈도와 상세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수나라 초기에는 고구려에 속했고 당나라 때에는 盖州와 遼州를 두었는데 얼마 안 있어 발해의 大氏가 차지한바 되었다. [...] 명나라 때에는 定遼都衛를 두었다가 얼마 뒤에 遼東都指揮使司로 개칭하였다. 지금은 遼陽州가 되었는데 이곳에서 20리 떨어진 곳으로 성을 옮기고 신요양이라 하였으며, 이곳은 폐하여 舊遼東이라 부른다. 『唐開元志』에 이르길 “요동은 남으로 장백산을 진산으로 하며 북으로는 鯨川의 바다에 이어지며, 二京과 故國五國의 옛 성이 여기에 있으니 또한 동북 지방의 한 도회지이다”라고 하였다. [...] 『元志』에는 이르기를 “인민들은 성품이 굳세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뛰어나다”라고 하였다. 歲徵으로는 銀 2,430냥, 米 5,170석, 豆 1,290석을 거두며, 雜稅로는 은 307냥, 穀 11,070석을 거두며, 養廉銀으로는 293냥을 정수한다. [...] 『明志』를 살펴보면 “화표주는 요동성 안에 있으며 예전에 돌기둥이 있었으나 없어졌고 道觀이 있었으나 세월이 오래 흘러 없어지고 창고가 되었다”고 하였다. [...] 駐蹕山은 처음 이름은 首山인데 산꼭대기가 네모나고 평평해서 손바닥을 펼쳐놓은 듯했다. 그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는데 물을 떠도 다하지가 않는다. [...] 明王山은 요양 동쪽 30리에 있는데 고구려 東明王을 산 위에 장사지냈다. 渤海는 요동 남쪽 730리에 있다. <齊都賦>에 이르길 “비단물이 옆으로 빼져나온 곳이 渤인데, 요동 2천 리가 이곳까지 뻗었구나 (海之傍出者爲渤 遼東延袤二千里)”라고 했는데, 요동 남쪽은 모두 발해에 임해 있다. [...] 遼河는 일명 句驪河이며, 柏柳河라고도 부른다. 『漢書』에는 大遼水라

39) 한글본, 12월 20일조.

40) 대략 인용된 서목은 『唐書』, 『皇明志』, 『地志』, 『隋志』, 『遼志』, 『遼史』, 『明志』, 『元志』, 『唐開元志』, 『漢書』, 『五代史』, 『廣輿記』, 『熱河日記』 등이다. 이러한 한문본의 추가 기록은 11월 말부터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인 2월 초까지 지속되고 있다. 조선에서 북경까지의 여정 중, 이르는 곳마다 각종 역사서와 지리지를 인용하여 각 지방의 관련 사건, 유명 사적, 지리 정보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41) 주석 26) 참조.

되어 있는데, 이 강의 동서편이 곧 요동과 요서로 나누어진다. 변방 너머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200리를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에 요동의 200리 진창길에 이르러 人馬가 통행할 수가 없어 흙을 깔아 디리를 만들어 갔다고 하는데 곧 이곳이다. 지금도 요동 땅에서 비를 만나면 진창이 되어 갈 수가 없으니, 이 또한 하늘이 만든 險地이다.<sup>42)</sup>

이 싸흔 신요양(新遼陽)이라 요동(遼東)이 한무제(漢武帝) 씨 죠선(朝鮮)을 폐(廢)하여 고을을 삼고 슈(隋)나라 씨의와 고구려(高句麗) 싸되고 금(金)나라 씨 요양(遼陽)고을이 되었더니 이제 성을 옮겨 신요양(新遼陽)이라하고 요동성(遼東城)은 구요양(舊遼陽)이라하니 민심(民心)이 사오납고 말타고 활 쏘기 잘하더라<sup>43)</sup>

부사와 함께 일부러 4, 5리를 우회하여 요동성에 방문한 뒤, 요동에 대해 기록한 12월 4일 기사이다. 한문본은 해당 기사의 절반 정도를 중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본에 비해 그 분량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한문본은 구체적인 문현을 인용하여 지명 및 지리 정보를 상세히 고증함은 물론, 세금과 사적, 관련된 시문 등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으나, 한글본은 개괄적인 설명 외에는 모두 생략해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역사적 설명은 연행록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묘사의 상세함은 한문본과 한글본에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 여정 중의 이동 경로와 역참 간 거리 등의 지리 정보는<sup>44)</sup>, 한문본에는 매우 상세하게 수록되었으나 한글본에는 아예 생략되어 있으며<sup>45)</sup>, 사적과 관련된 인물을 생략한 경우<sup>46)</sup>도 있다. 또한 한문본에는

42) 한문본, 12월 4일조, “……隋初屬高句麗 唐置蓋遼二州 尋爲渤海大氏所據. [...] 皇明置定遼都衛 尋改遼東都指揮使司. 今爲遼陽州 距此二十里移城 爲新遼陽 此廢稱舊遼東. 『唐開元志』曰 遼東 南鎮長白之山 北浸鯨川之海 二京故國五國故城 亦東北一都會也. [...] 『元志』曰 人民性悍而善騎射. 歲徵 銀二千四百三十兩 米五千一百七十石 豆一千二百九十石. 雜稅 銀三百七兩 穀一萬一千七十石. 養廉銀二百九十三兩. [...] 按『明志』華表柱在遼東城內 舊有石柱湮沒 有道觀久廢爲倉. [...] 駐蹕山 初名首山 山頂平正 有掌指之狀 泉出其中 挹之不渴. [...] 明王山 在遼陽東三十里 高句麗東明王葬其上. 渤海 在遼東南七百三十里. <齊都賦>云 海之傍出者爲渤 遼東延袤二千里 其南皆臨渤海. [...] 遼河 一名句驪河 又作构柳河. 『漢書』作大遼水 此水東西 卽遼東遼西所由分也. 源出塞外 西南流二百餘里入海. 唐太宗征高麗 至遼泥淖二百餘里 人馬不得通 布土作橋而行 卽此地也. 至今 遼地遇雨 則多淖難行 其亦天造之險也.”

43) 한글본, 12월 4일조.

44) 한문본, 11월 26일조, “望隅八里 蝦蟆塘四里 馬轉坂六里 石隅五里 金石山七里.”; 한문본, 11월 27일조, “乾浦三里 細浦七里 柳田二里 湯站九里. 有湯山城舊址 或云 明時所築 [...] 蔥秀站三里 魚龍堆一里 車蹕獐項四里 或稱沙坪王. 八石十里 上龍山三里 檜門十里.”

45) 선행연구(김근태, 2011)에서는 한글본의 특징으로 ‘역사적 유래와 설화를 적고 위치,

別單과 같은 공문서도 全文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등, 한글본에 비해 보다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한글본의 특징 검토

우선 분량 면에서 한글본은 한문본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한문본보다 한글본에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한문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세한 부연설명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한글본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sup>47)</sup>, 어려운 전문용어나 개념, 직위와 前例의 예법 등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스디(查對)라하는 일홈은 중원(中原)가는 조문(咨文)글이 혹 잘못되거나 그릇 쓰인 글자가 업는가하여 간디마다 되여 양고(詳考)하는 일홈이라.<sup>48)</sup>

부마초사원(夫馬差使員)이라는 것은 스신길의 역말대령하는 관원이라.<sup>49)</sup>

망하례(望賀禮)는 외방(外方)서 초호로 보름으로 각스(客舍)의 전판(殿牌)되신 드니 가서 대궐을 바라보아 스비(四拜)하는 일홈이라.<sup>50)</sup>

---

방향, 거리 등을 정확하게 기술한 측면을 들었다. 그러나 한글본보다 오히려 한문본이 구체적인 서목을 인용하여 역사적 사건과 사적, 지리 정보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한글본이 아닌 한문본의 특징으로 꼽혀야 할 것이다.

46) 한문본, 11월 26일조. “金石山七里。卽萬曆間 荊州人康世爵所隱處 山勢巖峻翠崔 如萬馬馳騁 而猶有秀麗之態。青烟滿起山谷中 終日不絕 清人疑其谷深有潛居者 伐木燒火以警之云。”  
康世爵은 명나라 때 遼東軍官으로 있었는데, 요동이 청나라에 함락되자 조선에 귀화하여 회령에서 살았던 인물이다. 위의 내용은 모두 한글본에는 생략되었다.

47) 선행연구(김근태, 2011)에서는 한글본의 특징으로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 알기 어려운 용어와 개념을 풀이하여 독자를 위한 배려 부분이 많다는 점, 둘째, 지나는 곳마다 역사적 유래와 설화, 위치, 거리 등을 정확하게 기술했다는 점, 셋째,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기록한 점, 넷째, 지극히 사적인 부연이 침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 번째와 네 번째 특징은 오히려 한문본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두 번째 특징은 구체적인 서적을 인용한 빈도가 한문본이 훨씬 많음을 간과하였을 뿐 아니라, 한글본에는 없는 한문본만의 상세한 지리 정보를 누락하여 해석한 탓이다. 네 번째 특징은 평양에서 숙소에 불이 난 사건(11월 7일조)이나 부사가 기생과 시를 수창한 사실(11월 9일조), 또 자신의 병세를 언급한 부분(11월 20일조) 등의 사적인 부연은 한문본에만 수록되어 있음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作詩의 배경에 대해 매우 빈번하게 설명하고 있는 한문본의 특징을 감안하지 못한 탓으로 생각된다.

48) 한글본, 10월 26일조.

49) 한글본, 10월 28일조.

50) 한글본, 11월 15일조.

황년져즈관(皇曆齋官) 일홈은 히마다 동지(冬至) 밖쳐 증원(中原) 칙년(冊曆) 맞타오는 역관(譯官)이라.<sup>51)</sup>

위의 인용문은 한문본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으로, 관직명, 공무, 의례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부마초사원’, ‘황년져즈관’ 등의 관직명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관직명이다. 게다가 한문 교육을 받지 않은 부녀자와 같은 계층은 그 발음을 통해서 의미를 추측하기도 힘들다. ‘舛’과 같은 공무와, ‘망하례’와 같은 예법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학문적 소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문본의 독자층에게는 굳이 細註를 달거나 설명을 부연하지 않았다.

또한 異國의 풍속과 관련해서도 부연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鳳城에서의 가옥구조에 대한 설명에 ‘炕[炕]’<sup>52)</sup>을 언급할 때와 난방용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잘 쓰이지 않는 ‘석탄’<sup>53)</sup>을 언급할 때 등이다. 이는 학문적 소양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국의 풍토에 대한 견문 여부와 관련하는데, 역시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한글본의 또 다른 특징은 매우 다채로운 수식이다. 비슷한 내용이라도 한문본에 비해 한글본은 보다 흥미롭고 재미있게 서술되고 있다.

뒤편에는 堂이 하나 있어 불상을 모셔놓았는데, 호인들이 앞다투어 향을 사르고 어지럽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원근의 저자 거리에 유리등을 내걸기도 하고, 畫紗燈을 내걸기도 했는데, 갖가지 형상으로 변화함을 다투었다. 놀려 나온 이들은 화려한 옷에 단장을 곱게 하고 구름바다처럼 거리와 골목을 가득 메웠다.<sup>54)</sup>

뒤의 불탱(佛堂)이 잇셔 붓쳐를 위하고 호인(胡人)이 닷토어 분향(焚香)하고 고두(叩頭)하고 틈을 어더 드러갈 셀이 업더라. 멀고 갓가온 져즈의 등찌 다 흔모양이오 등은 유리(琉璃)도 있고 사(紗)도 잇셔 아로쇠인 형용(形容)이 천박(千百)가지오 오름등은 비단을 간을게 써려 물의 푸리 어름등을 만드럿시니 기묘현황

51) 한글본, 11월 29일조. 원문의 날짜는 ‘이십팔구일’로 적혀 있다. 한문본의 28일 기사는 ‘책문에 머물렀다(留棚門)’는 짧은 내용이며, 황력재자관은 11월 29일 기사에 등장한다. 한글본에서는 28일 기사를 생략하고 ‘이십팔구일’의 날짜에 29일 기사를 수록하였다.

52) 한글본, 11월 27일조. “炕[炕]”이라는 일홈은 구돌을 일음이라.”

53) 한글본, 11월 27일조. “석탄은 싸의셔 나는 돌슛치라.”

54) 한문본, 1월 17일조. “遠近坊市 有掛琉璃燈 有掛畫紗燈 千形萬狀 爭侈競華. 遊人蕩子  
絃服麗粧 如雲如海 填街咽巷.”

(奇妙眩慌)한 모양은 붓스로 기록(記錄)할 길 업고 노는 스름과 협객(俠客)들은  
벗난 옷과 이람다온 단장(丹粧)으로 구름갓치 골목이 머이고 거리의 가득한더라.<sup>55)</sup>

1월 17일 저잣거리에서 觀燈하는 것을 구경하고 玉河橋 서쪽의 누각에  
이르러, 뒤편의 佛堂과 거리를 묘사한 부분이다. 한문본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한글본에는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물론 한문본과  
큰 차이가 있거나 서술 분량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보다  
다채롭고 흥미롭게 읽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문본에 비해 다채로  
운 수식은 건물과 산수를 묘사하거나 저잣거리의 풍경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表意文字인 한문보다 表音文字인 한글이 육성을  
통해 직접 묘사하는 듯한 부수적인 효과로, 읽는 재미를 배가시키는  
작용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한글의 다채로운 수식은 이국적인  
풍토를 보다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한 글쓴이의 의도적 글쓰기로 파악할  
수 있겠다.

한편 한문본에서는 축약되거나 간단하게 묘사한 부분이 한글본에서  
더욱 상세하게 표현된 부분도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다투어 손을 내밀며 淸心元을 달라고 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을 뿐더러 손을  
내저어도 가지 않았다. 만일 달라는 것에 한번 응하면 끝없는 요구가 이어지고  
무림없음이 더욱 심해질 것 같아 짐짓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하면서 우두커니  
흙덩이처럼 앉아 있었다. 여러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데, 혹은 현기증이  
있다 하고, 혹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키며 삼켜 먹는 모습을  
지어 보였다. 또 “없는가 보다”, “알아듣지 못하나 보다”라고 하였으나, 일체 응대하  
지 않았다. 이에 가슴을 문지르며 답답해하는 모습을 하며 손으로 가리키며 말하길  
“모두 뿌통[不懂]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라고 한다. 중국어로 모른다는 말을  
“뿌통[不懂]”이라 하는 것이다. 마두가 마침 이르러 중국말로 쫓아내었는데, 집주인  
이 있느냐고 묻자 그중의 한 노파가 말하길 “내가 掌櫃의 荊婦이고, 따라온 자  
중, 세 사람은 紅花女이고, 한 사람은 媳婦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마을의  
娘娘입니다”라고 하였다. 중국말로 집주인을 ‘掌櫃의’, 아내는 ‘荆婦’라 하며, 荆의  
음은 ‘仍’이다. 시집간 여자를 ‘홍화적’, 시집가지 않은 여자를 ‘黃花’라 하며, 紅의  
음은 ‘薨’, 女의 음은 ‘留’이다. 며느리는 ‘媳婦’, 여자를 통칭하여 ‘娘娘’이라 하며,  
媳의 음은 ‘時’이고, 娘의 음은 ‘兩’이다. 청심한 몇 개를 주어 보내고, 장난삼아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지었다. ‘수놓은 소매에 은 귀고리, 머리에 꽃을 가득

55) 한글본, 1월 17일조.

꽂았는데, 침상 앞에서 줄지어 서 있길래, 무엇을 구하는가 물었네. 웃으며 낭랑한 목소리 하는 말, 청심환을 구한다 하니, 호녀는 원래 부끄러움 모르는 이가 많다네(繡袂銀璫花滿頭, 床前列立問何求. 琅琅笑說清心藥, 胡女元多不怕羞)', 중국말로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것을 '不怕羞'라고 한다. 밤에 추운데 칭이 차가워서 감기 기운이 있었다.<sup>56)</sup>

닷토워가며 손을 벼려 월(曰) '친신한아'하니, '친신한'은 '청심환(淸心丸)'이라는 말이라. 말을 임의 통(通)치못하고 손을 둘너도 가지아니하니 만일 하나라도 쥐기 시작하면 더욱 감당(堪當) 못할뿐아니라 잡(雜)되기가 심(甚)하기 거짓 몰나듯 는 체하고 안겼시니 여러히 짓거려 혹 그르디 '투루퉁인부쥬'라하니 이마 아픈 것 슬 '투루퉁'이라하고 참지 못하단 말이 '인부쥬'오 혹(或) 그르디 '두리퉁호빙야'하니 '두리퉁'은 빅아푸단 말이오 '호빙'은 병 낫게하단 말이오 혹(或) 가르디 '우이우'라하고 혹(或) '충부더' 라하니 '우이우'는 업느냐말이오 '충부더'는 모로녀냐말이오 혹(或) 가슴을 만져 답답한 모양을 헤여 월(曰) '애부고신문'이라하니 '애부고'는 견디지 못하단 말이오 '신문'은 답답하다는 말이오 혹(或) 손소락으로 가라쳐 월(曰) '칭부자오도부등'이라하니 '칭부자오'는 듯지못한단 말이오 '도부등'은 도모지 모룬단 말이라. 게말을 오리 드르미 대강(大綱)알겟시나 즘증 모로는 체하고 안겼더니 마두(馬頭)가 맞춤와셔 '츄야'하니 '츄야'는 나가란 말이라 마지못하여 나가거늘 내 무려 월(曰) 그 중(中)의 집주인 잇느냐하니 혼 노파(老婆) 드러와 그르디 '오지장궤지깅썩우쓰거홍화뉴이거황화뉴이거시썩우타문지훈자내내'라 하니 '오지'는 내라는 말이오 '장궤지'는 집주인이라는 말이오 '깅썩우'는 안하란 말이니 내가 집주인 안하란 말이오 '싼거'는 셋시라는 말이오 '홍화뉴'는 쇠집간 쌀이라는 말이오 '이거'는 혼나히라는 말이오 '황화뉴'는 쇠집 아니 간 쌀이라는 말이니 셋션쇠집간 쌀이오 하나는 쇠집 아니 간 쌀이라는 말이오 '시썩우'는 며느라는 말이니 혼나는 며느리라는 말이오 '타문지'는 다른이라는 말이오 '훈자'는 스돈이라는 말이오 '내내'는 녀조라는 말이니 다른이는 스돈녀조란 말이라. 두어한 씩 쥐어 보니고 밤이 차고 칭이 치워 자지 못하고 감기(感氣) 기운(氣運)이 있더라.<sup>57)</sup>

56) 한문본, 1월 18일조. “爭先開手 請淸心元 言旣不通 指亦不去。若一應求 則恐秦求無已  
淆謬轉甚 佯若不解意者 凝然塊坐。衆口喧聒 或稱風眩 或稱肚疼 或以手指口爲吞下之狀  
又以爲無有耶聽不得耶 皆不應之。乃捫胸爲煩悶之狀 以手指之曰 都不懂 沒奈何。胡語  
以不知爲不懂也。馬頭適至 以胡語遂出 問有店主否 中有一婆曰 吾的 掌櫃的 茄婦 隨  
來的 三箇紅花女 一箇媳婦 他們的 皆村家裏娘娘云。胡語 店主曰掌櫃的 妻曰茄婦  
茄音其仍也。女子已嫁曰紅花 未嫁曰黃花 紅音薨 女音留也。子婦曰媳婦 女子通稱  
曰娘娘 媳音時 娘音兩也。給數丸而送之。戲吟一絕曰 繡袂銀璫花滿頭 床前列立問  
何求。琅琅笑說淸心藥 胡女元多不怕羞。胡語以不知羞恥事 為不怕羞也。夜寒炕冷 有  
感意。”

57) 한글본, 1월 18일조.

1월 18일 圓明園 인근의 왕씨 성을 쓰는 사람의 집에서 묵을 때의 일이다. 마을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조선의 淸心丸을 얻고자 숙소에 찾아와 부탁하는 정경을 묘사한 부분으로, 일단 양적인 면에서 한문본에 비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문본에서는 현지인과의 대화를 묘사하면서 한자어를 音差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은 약술하고 자신의 시 한 수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한글본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으며, 중국어의 발음 또한 한글을 사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 대화 내용도 한글본이 보다 상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화 묘사는 한글본에 몇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sup>58)</sup>, 모두 한문본의 기록에 비해 흥미를 배가시키는 작용을 하며, 한문본보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선행본 고증

한문본·한글본이 함께 並存하는 연행록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문본이 먼저 창작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한글본으로 번역되었으리라 여겨지고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정확한 고증이 요구된다. 김직연의 연행록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보통의 경우처럼 한문본이 연행 당시 일차적으로 창작되었으며,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한글본으로 재탄생되었으리라 짐작되지만, 보다 정확한 논증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sup>59)</sup> 또한 한글본이 한문본의 단순한 번역인지의 여부에

58) 한문본, 11월 27일조. “指點相謂曰 那位是大大人 這位是乙大人 那位是山大人. 胡語 二音 乙三音山故也. 及見譯官與馬頭輩 則多欣然迎笑 拱手相揖曰老爺一路平安麼 曰好來麼 曰請安 曰趁想 紛紛勞問 懈懶酬酢. 胡人 尊稱曰老爺 問候曰請安 喜見曰趁想故也. 盖歲歲此行 自多親熟 而又習知胡語 故問答如響也.”

한글본, 11월 27일조. “셔로 가라치며 월(曰) ‘나위대대인’이라하니 ‘나위’는 이게란 말이오 ‘대대인’인 상소란 말이오 쪼 ‘셔위을대인’이라하니 ‘셔위’는 저게란 말이오 ‘을대인’은 두 이쓰음을 읊이라하기 둘치 대인을 ‘을대인’이라하고 부신(副使)다려 저게 둘치대인이란 말이오 쪼 ‘나위쓴대인’이라니 쪽 삼쓰음을 ‘쓴’이라하기 셋치 대인을 ‘쓴대인’이라하니 셔장(書狀) 다려 이게 셋치 대인이라는 말이라. 역관(譯官)과 마두비(馬頭輩)를 보고 혼연(欣然)이 웃고 손을 잡고 셔로 읍(揖)하여 월(曰) ‘노야일노평안마’하니 존장(尊丈)이 길의 평안하니 말이오 쪼 ‘호령마’하니 잘 왓느냐 말이오 쪼 ‘충안’이라하니 문안(問安)을 청(請)하노라는 말이오 쪼 ‘진상(趁想)’이라하니 반갑단 말이라. 분분(紛紛)이 인스하고 은근(懸懶)이 슈작(酬酢)하니 히마다 이 길의 친숙(親熟)하고 호인(胡人)의 말을 익히 아는 고로 슈작(酬酢)이 난만(爛漫)하더라.”

59) 『의왕시사』 편찬과 선행연구를 집필한 김근태 박사는 2007년 11월 27일 『문화일보』와 『서울신문』의 인터뷰에서 “김직연이 일반 독자를 염두에 두고 한글로 연행록을 먼저 쓴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한문으로 연사록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sup>60)</sup>

먼저 그 논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인용문을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후술토록 하겠다.

11월 21일(壬辰). 의주에 머물렀다. 세 사신이 본영에 함께 모여 아침밥을 먹었으며, 安州에서 돌아오는 파발 편에 집에서 보낸 편지를 보았다. ①저녁에 부사가 다음과 같은 시를 보내왔다. “기주에서 시편을 받고 나서, 용만에 머물며 비로소 회답한다네. 기나긴 여정 하늘까지 이어진 먼 길인데, 옛 자취는 한 해를 보내며 이득하여라. 노쇠해 게으름이 본성을 이루었는데, 우활하나 다행히 마음 의탁할 곳 있다네. 압록강을 건넜에 날이 있음을 알겠거니, 시를 주고받음 이제부터 시작이리(蒙視嘉州什 留灣始和吟. 長程接天遠 舊跡度年深. 衰懶仍成性 遷蹠幸托心. 渡江知有日 酬唱擬從今).”

②11월 22일(癸巳). 맑고 조금 추웠다. 의주에 머물러 있었다. 부사가 보내온 시에 회답한 시를 지었다. “거칠고 속된 작품을 가지고 고아한 시편 회답하기 구한 것 부끄러워라. 말세에 지음이 적은데, 늙은 나이에 맺은 교분 깊어라. 변방의 바람 백발을 흘날리는데, 왕사를 위한 단심이 있어라. 시구를 찾음에 어찌 졸렬함을 꺼리리? 시름을 푸는 것 다행히 지금부터 시작되리(愧將巴里曲要和郢中吟. 末路知音少 頽齡托契深. 邊風吹白髮 王事有丹心. 覓句何嫌拙 消愁幸自今).” 申時가 지나 상사, 부사 및 의주 부사와 함께 통군정에 올랐다. 벽 위에 圖隱[鄭夢周]과 牧隱[李檍] 두 선생의 시가 걸려 있어 고려 때에 창건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③대들보 위에 ‘統軍亭’이란 석 자가 대자로 씌어 있었는데, 承旨 宋祥來의 글씨이다. 곁에 있는 작은 액자에는 八分體로 ‘통군정’이라 씌어 있는데, 고려 때 걸어놓은 것 같으나 누구의 글씨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서쪽으로 난간 아래를 굽어보니 압록강이 횡으로 두르고 있는데 푸른 바다까지 이득히 이어져 끝없이 흘러갔다. 북쪽으로 멀리 바라보니 책문 너머 여러 산봉우리가 연이어져 있었으며, 동남편으로는 성 안팎의 萬戶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저녁 안개에 감싸여 있어 아득히 분별할 수가 없었다. 밤에 정자 아래에서 횃불 하나를 들자 압록강 연안 상하로 40리에 달하는 여러 堤營에서 일시에 횃불을 들어 응하니, 이 또한 하나의 장관이었다. <㉠> 밤이 깊어 본영으로 돌아와 紙砲 쏘는 것을 관람하였다. <㉡> ④숙소로 돌아와 다음과 같은 율시 한 수를 얻었으니, “가파르고 힘준한 절벽 압록강 강가에 높이 솟았는데, 구름 시다리 두루 건너와 높은 누각에 올랐네. 요동과 계수 삼천리 땅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니, 아득한 진 너머 변방의

선행연구(김근태, 2011)에서는 “한문본을 먼저 쓰되, 한글본은 별도의 서술체계로 서술 했다”라고 견해를 수정하였다.

60) 선행연구(김근태, 2011)에서는 “한글본이 곧바로 한문본의 번역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주석 64)를 참조하라.

산하 오십 주가 펼쳐져 있다네. 대지를 갈라놓는 푸른 바다 허공 너머 내달리고, 하늘이 낮게 내려와 해와 달 가까이에 떠 있는 듯. 이제야 비로소 桑蓬의 뜻을 이루었나니, 연경에 이르지 않고도 이미 장한 유람을 하였구나(峭壁嶒峻鴨水頭, 雲梯歷盡又高樓. 平臨遼薊三千里, 遙鎮關河五十州. 地坼滄溟空外走, 天低日月近前浮. 如今始遂蓬桑志, 不到燕城已壯遊).”<sup>61)</sup>

이십일일(二十一日) 삼신이 본영의 모되어 아침밥먹고 안주(安州)별마회현의 가서(家書)보다. 신후(申後)의 상부수(上副使)와 본관과 갓치 통군정(統軍亭)의 오르니 벽의 포은(圃隱)·목은(牧隱) 현판이 잇스니 고령(高麗)적 집인줄 알더라. 서(西) 흐로 난간(欄干) 밖글 구비보니 압녹강(鴨綠江)이 빗기 쌍이고 큰 바다 망망(茫茫)한데 가히 업고 북(北)으로 바라보니 칙문(柵門) 밖에 봉만(峰巒)이 쌍의 짧니였고 동남(東南)으로는 성안팟 일만집이 기와가 연(連)하고 서녀 해가 흐려 분변치 못할너라. 밤의 햇불 한나를 경조(亭子) 아뢰드니 강까 수십 니(里) 모단 둔(屯)이 일시의 불을 드러 응(應)하고 쪼흔 장관(壯觀)일너라. ④이<sup>62)</sup>는 강까의 슈즈리 살니는 군수들이 잠자는가 시험한노라 미양 불노 증험(證驗)하는 전례(前例)라라. 밤든후 본영(本營)의 도라와 지포(紙砲)를 보니 ①지포라하는 것손 동의갓튼 그릇의 수면(四面)으로 궁궐 낙고 구멍의 화약을 유지의 쓰 쇠갓다가 불을 지르면 일시의 총소리나고 화약이 공중의 쇠소울나 쇠가지 모양도 갖고 별종한 듯도 한여 형형식식(形形色色)이 그이한니 증원풍속일너라.

11월 21일과 11월 22일 기사로, 의주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한문본의 밑줄 친 부분은 한글본에는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며, 한글본의 경우도 한문본에 수록되지 않은 곳에 밑줄로 표시를 하였다. 즉, ④, ⑤, ⑥, ⑦는 한글본에 없는 내용이며, ⑧과 ⑨는 한문본에는 없는 내용이다.

61) 한문본, 11월 21일조. “二十一日壬辰 晴. 留義州. 三使會喫朝飯于本營 因安州回撥見家書. ④夕副使送詩云 ‘蒙視嘉州什 留灣始和吟. 長程接天遠 舊跡度年深. 衰懶仍成性 迂踈幸托心. 渡江知有日 酬唱擬從今’.  
⑤二十二日癸巳 晴 微寒. 留義州. 和送副使詩云 ‘愧將巴里曲 要和郢中吟. 末路知音少 類齡托契深. 邊風吹白髮 王事有丹心. 覓句何嫌拙 消愁幸自今’. 中後 同上副使及本倅 登統軍亭. 壁上揭圃牧二先生詩 可知勝國時所建. ⑥樑上大書‘統軍亭’三字 宋承旨祥來筆. 傍有小扁八分書統軍亭 似高麗時所揭 而未知誰人筆. 西俯 檻外鴨水橫帶而滄海杳茫無際 北望 檻外群峰粘地 東南 城內外萬戶連甍 夕烟籠罩 迷不可辨. 夜舉一炬于亭下 沿江上下四十里諸屯 一時舉火以應之 亦一壯觀也. <⑦> 夜深赴本營 觀紙砲 <⑧> ⑨ 仍還館. 所得一律云 ‘峭壁嶒峻鴨水頭, 雲梯歷盡又高樓. 平臨遼薊三千里, 遙鎮關河五十州. 地坼滄溟空外走, 天低日月近前浮. 如今始遂蓬桑志, 不到燕城已壯遊.’ 밑줄 친 부분은 한문본에만 수록된 부분이며, 그 외 부분은 한글본과 동일한 내용이다.

62) 한글본, 11월 21일조. 밑줄 친 부분은 한글본에만 수록된 부분이며, 그 외 부분은 한문본과 동일한 내용이다.

다. 한문본의 ①와 ②는 삽입시인 까닭에 한글본에서 생략되었고, ③는 편액과 서체에 관련한 부분이라 한글본 독자층에게는 생략한 경우이다. ④ 역시 삽입시인 까닭에 생략하였다. 한글본의 ⑤와 ⑥는 한글본의 특징으로 언급한 부연설명 부분이다. ⑤는 강가의 여러 둔영에서 햇불로 서로 신호하는 것에 대한 부연설명이고, ⑥는 紙砲<sup>63)</sup>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그런데 11월 22일의 날짜와 간지, 날씨를 기록한 부분은 한글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번역하던 중에 일어난 착오로 여겨지는데, ①와 ②의 삽입시를 생략하는 과정에서, 날짜와 간지 역시 생략해버린 것으로 추측된다. 한글본의 내용으로 보면, 첫째 줄은 11월 21일의 기록이며, 둘째 줄부터 11월 22일의 기록인데, 날짜와 간지를 일부러 생략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또 한글본을 저본으로 삼아 한문으로 번역했다면, 이러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연설명인 한글본의 ⑦와 ⑧를, 한문본의 <㉠>과 <㉡> 위치에 삽입할 경우, ①, ②, ③, ④가 생략된 한문본과 내용상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sup>64)</sup> 따라서 한문본이 선행본이며, 이를 토대로 한글본이 번역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문본이 선행본인 증거는 몇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다.

11월 28일(己亥). 맑았으나 바람이 불고 추웠다. 책문에 머물렀다. 11월 29일(庚子). 맑고 추웠다. 책문에 머물렀다. 皇曆齋客官<sup>65)</sup>이 돌아가는 편에 북경의 소식을 대략 들었다. 서남방의 적도들은 근래 僧王이 토벌했기에 安徽·福建 등 여러 성의 州縣들은 자못 많이 수복했다. 적도들이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 곳이 많고, 농사는 지난해보다 형편이 조금 낫지만 곡물 가격이 급등해서, 황성内外에 粥廠을 많이 설치해서 진휼한다고 한다.<sup>66)</sup>

63) 紙砲는 화약을 종이나 대통 같은 것의 속에 쌔 넣고, 그 끝에 심지를 달아 불을 땅에 터지게 만든 놀이기구를 말한다.

64) 선행연구(김근태, 2011)에서는 한글본의 11월 21일과 22일의 기사를 인용하여, “십일월 이십일일부터 이십이일 새벽까지 이어진 기록이므로, 별도로 이십이일 기록은 독립시 키지 않았으나, 한문본에서는 이십이일의 기록이 다르게 나타나 있다”고 하며, 이를 근거로 “한글본이 ‘사건 중심’인 데 반해 한문본은 ‘날짜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글본이 한문본의 단순한 번역이라면 이러한 서술상, 내용상의 상이 점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삽입된 시를 생략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날짜와 간지까지 생략해버렸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고, 또 ⑦와 ⑧를 부연설명이 아닌 다른 사건을 묘사하는 것으로 오관한 결과이다.

65) 皇曆齋客官은 중국으로 曆書를 받으러 가는 약식 사행을 말한다. ‘皇曆’을 ‘黃曆’이라 쓰기도 한다. 전에는 동지사가 하던 것을 顯宗 때부터 따로 가게 되었는데, 세 사신(상사·부사·서장관)의 격식을 갖추지 않고 역관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啓文을 보내는 약식 사행이다.

이십팔구일 족문(柵門)서 묵을시 황녁저즈관(皇曆齋咨官) 나오는 편의 연경(燕京) 쇼식(消息)을 대강 전해되 서남편 도적은 승왕(僧王)이 쳐서 파해였시나 적병(賊兵)이 오히려 두루 잊고 년형(年形)은 흥년(凶年)으로 황성(皇城)서 과민(饑民) 먹인다하니 황녁저즈관 일홈은 허마다 동지(冬至) 밋쳐 중원(中原) 족년(冊曆) 맛타오는 역관(譯官)이라.<sup>67)</sup>

한문본 11월 28일 기사는 날짜와 간지, 날씨 외에 ‘책문에 머물렀다(留柵門)’는 간단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를 한글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11월 29일 기사와 합쳐 날짜를 ‘이십팔구일’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한글본이 선행본이라면 한문본 11월 28일 기사는 따로 독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문본 11월 30일 기사에서는 乾糧庫直 李炳元이 책문에서 먼저 귀국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sup>68)</sup> 그런데 이 인물은 한글본에서는 ‘건량고직 니성순’<sup>69)</sup>이라고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이는 애초에 ‘이병원’으로 잘못 기록된 한문본의 성명이,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한글본에서 바르게 고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행록 말미에 부기되어 있는 <行中員錄>에 따르면 당시 사행에 참여하여 건량고직의 직책을 맡은 인물은 李性順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연행록을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에 수록된 <행중원록>의 명단을 바르게 작성하고서도, 부차적인 번역 중에 이름을 謾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본은 바로 한문본이 될 것이며, 한글본은 추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번역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현지인과의 대화에서 중국어 어휘 및 발음을 묘사한 경우, 아무리 기억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한문본만을 참고해서는 한글본에 수록된 내용만큼 기술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분명

66) 한글본, 11월 28, 29일조. “二十八日己亥 晴風寒. 留柵門. 二十九日庚子 晴寒 留柵門. 皇曆齋咨官出來 畧聞燕京消息. 西南賊匪 近因僧王討破 安徽福建等諸省州縣 頗多克復 而匪黨尙多猖獗. 年形雖稍勝於去年 而穀價翔貴 皇城內外 多設粥廠賑恤云.”

67) 한글본, 11월 28일, 29일조.

68) 한문본, 11월 30일조. “三十日辛丑 晴寒. 留柵門. 始擬今日離發 因副房伴僫有患者者 更退一日. 乾糧庫直李炳元告歸 盖書狀則裨將奴子外 伴僫無過四人 卽定式也. 吾行必欲 簡繆 故四人內又減一人. 殊域送別 極爲悵然 沉幼而學字 長而服勤 十餘年來 不離左右者 也. 不忍旋踵 掩面而啼 僕奴輩亦執手相慟 吞聲不能語 景色甚不佳.”

69) 한글본, 11월 30일조. “…… 반당이라는 명식은 조선짜라 가는 문식이라. 건량고직(乾糧庫直)이 니성순(李性順)이 돌녀보늬니 …….”

따로 기록해놓은 鐵紙 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한글본으로의 번역 과정에서 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직연은 연행 당시 이미 한글본으로의 번역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중국어 발음에 대한 별도의 기록이 존재했으리라는 정황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

## 2. 구체적 독자층 究明

조선후기 방각본 소설이 사대부 규방에서 주로 읽혔음을 주지의 사실이다.<sup>70)</sup> 따라서 한글본 연행록 역시 그 수용독자층이 여성이었음을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흥미롭고 다채로운 수식 역시 주 독자층인 여성들을 배려한 작자의 의도라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문본에서 상세하게 표현되는 편액에 관한 설명, 그림이나 서체에 대한 품평, 시의 풍격이나 사조와 같은 전문적 내용이나, 상주문 등의 공식문서 등이 한글본에서는 간략하게 약술되거나 아예 생략되는 것이 그 실례일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타 연행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760년 사행길에 자제군관으로 참여한 李商鳳(1733-1801) 또한 한문본인 『北轍錄』과 한글본인 『서원녹』 두 본의 연행록을 남겼는데, 공문서를 포함한 복잡다단한 내용은 약술하거나 생략한 경우를 볼 수 있다.<sup>71)</sup>

그렇다면 김직연의 한문본·한글본 연행록 역시 한문본은 남성·문인 계층, 한글본은 여성·서민계층이었다는 이분법적인 결론으로 그 독자층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다시 한문본과 한글본의 특징을 살펴보며 이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여정 중의 이동 경로와 역참 간의 거리, 지리 정보 등은 한문본에 수록된 내용이 보다 풍부하고 상세한 반면 한글본에서는 아예 생략되어 있거나 약술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글본에는 사적과 관련된 인물을 생략한 경우<sup>72)</sup>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각종 역사적 지식과

70) 방각본 소설이 남성층에게도 읽혀졌다는 정황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사대부 여성계층이 주 독자층이었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71) 李商鳳의 연행기록인 『北轍錄』과 『서원녹』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한문본인 『北轍錄』의 경우, 『欽定古今圖書集成』의 總目과 雍正帝가 직접 쓴 序文, 『고금도서집성』의 상세 내용 및 편차 등이全文을 옮겨 쓰거나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반면, 한글본인 『서원녹』에서는 『고금도서집성』의 목차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옹정제의 서문 및 상세 내용, 편차 등은 생략되어 있다. 李商鳳, 『北轍錄』, 『서원녹』, 1761년 1월 19일조.

지리 정보 등에 어두운 독자의 가독성을 배려한 측면이라 생각된다. 서당식 한문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한문본과 같은 상세한 설명은 오히려 흥미를 반감시키거나 장황하게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글본의 독자층은 서당식 교육을 받지 못한 서민계층과 여성 부녀자계층이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한문본에 수록된 삽입시가 한글본에서는 대부분 생략되거나, 부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수록된 시의 경우에도 모두 한자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으며, 小字雙行으로 번역까지싣고 있다. 마치 한글본의 수용독자층을 대상으로 한시 작품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마저 풍기고 있다. 그렇다면 한글본이 서민층과 일반 여성 등의 폭넓은 독서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식으로 한문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학문적 소양이 있는 계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추측케 한다. 곧 그 수용독자층이 서민 남성과 일반 여염집의 부녀자일 가능성은 낮은 반면, 사대부 집안의 규방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추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한글본의 독자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학문적 소양이 있는 사대부 여성층이라고 규정하기에도 그 범위가 너무 넓다고 볼 수 있다. 방각본으로 판각되어 널리 간행된 것이 아닌, 필사본 연행록 몇 책을 돌려가며 읽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염의 부녀자와 서민계층은 물론, 일반 사대부 집안의 여성으로 독자층을 설정하는 것에도 무리가 따른다. 다행히 한글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몇 군데 확인된다. 친구나 가족, 가까운 인척들을 대상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센우(慎友) 쟁화(昌華)는 아오의 쳐남이라”<sup>73)</sup>라는 부분과 “슈안군수(遂安郡守) 경뉴(鄭鑾)와보니 본되 결친간이라”<sup>74)</sup>라는 부분, 또 “감사(監司) 김기만(金箕晚)은 동느친호 어륜이라”<sup>75)</sup>라고 언급한 부분들이다. 한문본에는 人名만 간략하게 細註 형태로 표기되어

72) 주석 46) 참조.

73) 한글본, 10월 28일조. 밑줄 친 부분은 한글본에만 기록된 부분이다.

74) 한글본, 11월 1일조. 밑줄 친 부분은 한글본에만 기록된 부분이며, 한문본에는 細註로 人名만 표기되어 있다.

75) 한글본, 11월 5일조. 밑줄 친 부분은 한글본에만 기록된 부분이며, 한문본에는 細註로 人名만 표기되어 있다.

있으나, 한글본에는 이처럼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드러내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독자층으로 인식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알 만한 주변 인물로 그 독자층을 국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일반 여성층과 서민층, 일반 사대부 규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 가족과 인척들 중의 부녀자로 독자층을 보다 좁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독자층 중에서도優先하는 독자로 친인척을, 차등의 독자로 일반 여성 및 서민층을 감안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가족과 가까운 인척 중의 부녀자가 우선하는 독자층이었음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11월 7일(戊寅). 맑고 추웠다. 평양에 머물렀다. 주사 어른이 삼사를 초대해서 기악을 베풀어 부벽루(浮碧樓)에 모였는데, 나는 사양하고 가지 않았다. 지녁에 머무는 방 온돌에 구멍이 나 화염이 위로 치솟아 올라 침구와 자리 몇 개를 태우고 나서야 불을 껐다. 온돌을 갈 때에 보니 한 바가지의 물과 주먹만 한 돌 하나로 한두 사람이 잠시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知印<sup>76)</sup>들이 분주하게 왕래하며 공방아전과 水汲婢, 흙손질하는 품팔이꾼 등 명목이 잡다하였다. 이라는 사이에 요와 자리는 다 타버렸고 연기와 불꽃이 방에 기득하여 한바탕 난리를 치렀으니, 지방 고을의 일처리가 대부분 이 같은 것이 많았다.<sup>77)</sup>

부사가 절구 한 수를 읊조리며 말하기를 평양에 머물 때의 방기(房妓) 농옥(弄玉)이 이곳에 와서 陽關曲<sup>78)</sup>을 부르며 송별하기에 붉은색 머리띠에 써준 것이라고 한다. “추운 겨울 양관에서 사신의 수레 머무르니, 다정스런 어린 기녀 구름 같은 머리털 단정하게 빗었네. 선심에 三桑의 그리움<sup>79)</sup> 불을가 저어하니, 꿈은

76) 知印은 조선조 때 관아의 官長 앞에 떨리어 잔심부름을 하던 이속을 가리키며, 通引이라고도 한다.

77) 한문본, 11월 7일조. “初七日戊寅 晴寒. 留平壤. 主使丈邀三使 携妓樂 會浮碧樓 余辭不往. 夕房塈有孔 火焰衝上 燒突幾重褥席救火. 改塈 不過一器水·一拳石 一二人一霎時之勞. 而知印輩奔走往來 廣招工房吏·水汲婢 坊者傭者 名色不一. 於斯之際 褥席盡燒 烟焰滿室 好經一場騷擾 外邑事類多如此.”

한글본, 11월 7일조. “초칠일(初七日) 감소(監司)가 삼수신(三使臣)을 청(請)한 여 기악(妓樂)을 다리고 부벽루(浮碧樓) 노름하기 나는 가지 아니었다.”

78) 陽關曲은 樂府의 곡 이름으로, 옛날에 이별하면서 부르던 노래이다. 渭城曲이라고도 한다. 唐나라 王維의 <送元二使安西> 시에 “위성의 아침 비가 가벼운 먼지를 적시니, 객사의 푸르고 푸른 버들 빛이 새롭구나. 그대에게 한 잔 술 더 기울이라 권하는 것은, 서쪽으로 양관을 나가면 친구가 없음일세(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進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79) 三桑은 세 그루의 扶桑나무를 말한다. 부상은 고대 神木의 이름으로 전설에 의하면

秦樓<sup>80)</sup>의 달빛 아래 피리 소리에 끊어지네(陽關寒天駐使輶, 多情少妓整雲翹 禪心  
恐着三桑戀, 夢斷秦樓月下簫).” 도중에 점차에서 다시 지었다. “양관 너머로 또다시  
사신의 수레 달려 전별하러 온 단장한 미녀 몇 사람이던가. 우두커니 서서 진루에  
돌아나가는 해를 보노라니, 하늘에서 부는 바람 달빛 속 피리 가락 전해주네(又陽關  
外走星輶, 出餞紅娥幾寶翹. 佇看秦樓回過日, 天風吹送月中簫).”<sup>81)</sup>

11월 20일(辛卯). 맑고 추웠다. 의주에 머물러 있었다. 밥을 먹은 뒤에 歲幣米를  
받들었다. 저녁에는 체증이 있어 養胃湯을 복용하고 저녁밥을 걸렀다.<sup>82)</sup>

위의 인용문 중 밑줄 친 부분은 모두 한문본에만 수록된 내용이다. 11월 7일 기사는 평양의 숙소에서 불이 난 사건을 자세히 묘사한 것이고, 11월 9일 기사는 부사와 기생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수작했다는 내용이며, 11월 20일 기사는 자신의 병세를 언급하고 약을 복용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저자가 염두에 둔 한글본의 독자가 자신과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일 경우, 이와 같은 부분을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숙소에서 불이 난 사건과 병세가 있어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은, 가족과 인척들에게 팬한 걱정을 끼치는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부사의 일이기는 하지만 기생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시를 지어주었다는 내용은 아녀자에게 보이기 겸연쩍은 내용일 것이다.

1727년(영조 3) 사행을 갔던 姜浩溥(1690-?)는 한문본 『桑蓬錄』과 한글본 『상봉녹』, 두 개의 여행기록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한글본은 여행을 다녀온 지 13년 후, 老母의 臥遊를 위해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고 서문에서 밝혔으며, 후에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한문본이 일실되자 한글 본을 토대로 다시 한문본을 엮어내기도 하였다.<sup>83)</sup> 김직연의 경우도

해가 그 아래에서 뜬다고 전한다.

80) 秦樓는 춘추시대 秦나라의 凤台를 지칭한다. 秦 穩公의 딸 弄玉이 피리의 명인 蕭史에게 시집을 가서 열심히 배운 결과 凤鳴曲을 지어 부르게 되자, 목공이 그들을 위해 凤臺를 지어주고 거하게 하였는데, 뒤에 부부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고사가 전해온다. 『後漢書』『矯慎傳』.

81) 한문본, 11월 9일조. “副使口傳一絕云 在平壤時房妓弄玉到 又陽關送別 故題其紅帕而贈之 曰 ‘陽關寒天駐使輶, 多情少妓整雲翹, 禪心恐着三桑戀, 夢斷秦樓月下簫’. 道中就次曰 ‘又陽關外走星輶, 出餞紅娥幾寶翹. 佇看秦樓回過日, 天風吹送月中簫.’” 한글본에는 부사와 기생 농옥과의 일화는 물론, 삽입된 시 역시 생략되어 있다.

82) 한문본, 11월 20일조. “二十日辛卯 晴寒, 留義州. 食後 捧歲幣米. 夕因帶祟 服養胃湯 闕夕飯.”

한글본, 11월 20일조. “니십일(二十日) 세페미(歲幣米) 啖 석(石) 밧즈한다.”

83) 『桑蓬錄』 권1. 「編述四養齋桑蓬錄序」, “英廟三年丁未, 我曾王考四養齋先生, 從行人遊燕

강호부와 마찬가지로 노모의 와유를 위한 한글로의 번역으로 짐작할 수 있겠으나, 김직연은 어려서 조실부모한 이후 고모부인 李道在(1771-1841)에게 의탁했다는 사실<sup>84)</sup>을 미루어보면, 노모를 위한 번역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1차적 우선 독자는 저자의 부인이나 자녀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점차적으로 가까운 인척 중의 여성과 원근의 이웃 및 족친 중의 부녀자계층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다.

#### IV. 자료적 가치와 문학사적 의의

현재 알려져 있는 여행록 중, 한문본과 한글본이 모두 남아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金昌業(1658-1721)의 『老稼齋燕行日記』·『稼齋燕錄』·『연횡일기』<sup>85)</sup>, 姜浩溥(1690-?)의 『桑蓬錄』·『상봉녹』<sup>86)</sup>, 李商鳳(1733-1801)의 『北轍錄』·『셔원녹』<sup>87)</sup>, 洪大容(1731-1783)의 『湛軒燕記』·『乙丙燕行錄』<sup>88)</sup>, 朴趾源(1737-1805)의 『熱河日記』·『열하기』<sup>89)</sup>, 徐有聞(1762-?)의 『戊午燕行錄』<sup>90)</sup> 등이 한문본·한글본 모두 병존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문본·한글본이 함께 발굴된 김직연의 여행록은 여행록 연구사에 큰 의미를 지니며, 학술적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京, 有記行日錄, 名曰桑蓬錄. [...] 後. 其書爲公友人西岡處士鄭郡守壽延所借去, 未知何由而蓋逸未返璧. [...] 幸家有諺本一通, 卽公嘗爲奉覽於慈庭, 而手自譯寫者也. [...] 依其諺本翻作文字.” 고운기, 「桑蓬錄」, 『연행록해제』(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2003) 참조.

84) 김근태의 앞의 논문(2011)에 김직연의 생애가 재구되었으나, 정확히 언제 부모가 빙하였는지는 논증된 바 없다. 다만 고모부에게 의탁했다는 사실로 볼 때, 당시 김직연의 나이가 어렸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85) 1712년(숙종 38), 金昌業(1658-1721), 『老稼齋燕行日記』(『연행록전집』 32·33), 『稼齋燕錄』·『연횡일기』(『연행록전집』 31).

86) 1727년(영조 3), 姜浩溥(1690-?), 『桑蓬錄』(연세대학교 도서관); 『상봉녹』(연세대학교 도서관).

87) 1760년(영조 36), 李商鳳(1733-1801), 『北轍錄』(『연행록선집보유』 上); 『셔원녹』(『연행록선집보유』 下).

88) 1765년(영조 41), 洪大容(1731-1783), 『湛軒燕記』(『연행록전집』 42·43·49); 『乙丙燕行錄』(『연행록전집』 44-48).

89) 1780년(정조 4), 朴趾源(1737-1805), 『熱河日記』(『연행록전집』 53-56); 『열하기』(『연행록선집보유』 下).

90) 1797년(정조 21), 徐有聞(1762-?), 『戊午燕行錄』(한문본)(『연행록전집』 62-64); 『戊午燕行錄』(한글본)(『연행록전집』 62).

그렇다면 왜 한문본, 한글본이 병존하는 경우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은지, 한글본으로의 번역은 어떠한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궁구해보도록 하겠다. 전술했다시피 한문본은 보편적인 연행기록이라 볼 수 있으며, 한글본은 여성 독자층을 위한 서술 방식 및 텍스트의 변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어려운 단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관문 등을 통과할 때의 전례, 각종 문헌에 언급된 사적에 관한 소개 등은 여성층의 가독성을 배려한 측면으로 한글본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삽입된 시의 한자어 발음을 한글로 적고, 상세한 번역을 첨부하고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시에 대한 단순한 설명을 뛰어넘어 한시에 대한 간접적인 교육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한시 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한문을 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학자나 사대부 여성계층의 교양 함양에도 한시 교육이 병행되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한시에 대한 이해와 작시 능력이 중요시되면서<sup>91)</sup>, 여러 詩學書가 편찬되어 보급되는 등<sup>92)</sup>의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學詩의 분위기는 한글본 연행록에 삽입된 시 역시 여성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인 목적이 포함되었으리라 추측케 한다. 한글로 기록된 한자의 음과 소자쌍 행의 축자식 번역은, 교육 목적으로 편찬된 다른 한시 번역서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91) 조선에서는 국가 차원의 시학 진흥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는 중국 사신과의 수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위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였다. 『중종실록』 31년 12월 8일자 기사에 “(중국 사신과) 酬唱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데 수창이 원활하게 된다면 나머지 작은 일이 혹 뜻에 맞지 않더라도 그들이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도 조선에 파견하는 사신은 특별히 시학에 뛰어난 선비를 가려 뽑았던 사실을 미루어보면, 당대 시학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김덕수, 「朝鮮 文土와 明使臣의 酉唱과 그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27(한국한문학회, 2001) 참조.

92) 정통 한문 교육을 배우는 계층에게는 『杜詩諺解』와 같은 한글 번역서나 『纂註杜詩澤風堂批解』같이 구결과 비평이 수록된 學杜書가 널리 수용되었으며,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에게는 보다 쉽게 쓰인 『對句聯珠集』이나 『字訓諺解』와 같은 한시 교육서가 편찬 수용되었다. 『두시언해』는 주석문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기록하였으며, 『찬주두시택풍당비해』는 구결과 주석, 저자의 견해를 덧붙인 것이다. 또 『대구연주집』은 쉬운 한시 구절을 뽑아 초학자를 위한 한시 교육서이며, 『자훈언해』는 宋나라 程端蒙의 저작인 『字訓』을 墓守慎(1515-1590)이 조카를 위해 번역과 주석을 단 것이다. 이종묵,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Diaglossia)」, 『진단학보』 104(진단학회, 2007); 김덕수, 「택당 이식의 한시론과 택풍당비해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황문환, 「字訓諺解」, 『문헌과 해석』 3(1998) 참조.

또한 16세기 이래 일반 백성의 교회를 목적으로 한 한글 전용의 교화서가 급증했으며<sup>93)</sup>, 왕실 여성의 교화와 교양을 위한 한글번역 작업도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sup>94)</sup>, 또 사대부가의 부녀자에게도 한시번역서가 수용되고, 여성들의 문집이 한글로 번역되어 규방에 읽혔다는 정황<sup>95)</sup> 등은 여성계층에게도 한시 교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한다. 조선후기인 18,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한문학적 문예 교양의 일환으로 규방에서도 적극적으로 한시를 번역하여 습득하였는데, 고전소설 중에서는 서사전개에 장애를 주는 요소이면서도 굳이 번역된 한시가 상당 분량 삽입된 경우가 있을 정도로, 한시에 대한 이해는 여성층의 문화 교양에 필수적인 요소로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sup>96)</sup>

여성에게는 한문으로 문자생활을 하는 것이 금기시되었기에 한문을 알면서도 한글로 된 책을 읽어야 했고, 한글로 글을 써야 했던 사회 분위기에 따라 한글은 점차 여성층의 공식문자로 정착되었다. 게다가 상대가 여성일 경우에는 남성 지식층도 한문이 아닌 한글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지은 한시도 번역문뿐만이 아닌 원문까지 한글로 읽는 전통이 생겼으며, 광범위한 교양 습득을 위해 한글로 번역된 역사서나 여행기를 읽었고, 서민층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던 것은 당대의 현실이었다.<sup>97)</sup>

조선후기 활발하게 창작되어 유행한 한글소설이 사대부 부녀자들에게 단순한 파적거리에 불과한 것이 아닌 교양 함양의 목적이었다는 평가를 감안해보면<sup>98)</sup>, 한글본 연행록 역시 주 독자층인 사대부 여성층의 교양

93) 당시 백성의 계몽과 교화를 위한 한글 번역서로는 『속삼강행실도』(1514), 『여씨향약언해』(1518), 『정속언해』(1518), 『이륜행실도』(1518), 『경민편언해』(1519) 등이 있다. 이종묵, 앞의 논문(2007) 참조.

94) 演慶堂 서책 목록인 『諺文冊目錄』에 수록된 한글자료는 총 225부 3,094책에 이르는데, 『고문벽선』(『古文百選』의 번역서), 『시경언해』, 『十九史略諺解』 등이 대표적인 한글 번역서이다. 또한 18세기에 편찬된 『古文眞寶諺解』(8권 8책, 장서각본)에는 春宮, 噠嬪房(思悼世子의 생모) 등의 인장이 찍혀 있는데 이를 통해 왕실의 여성들이 이를 교양서로 읽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종묵, 「朝鮮時代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書誌學報』 26(2002) 참조.

95) 1737년 魚有鳳(1672-1744)은 시집간 차녀의 청으로 『詩經』 중 73편의 시를 뽑아 번역하여 『風雅闡誦』을 편찬하기도 했으며, 여성들의 문집이 한글로 번역된 것은 浩然齋 金氏의 『浩然齋遺稿』, 宜幽堂 南氏의 『宜幽堂遺稿』, 憑虛閣 李氏의 『憑虛閣全書』 등이 있다. 이종묵, 앞의 논문(2007) 참조.

96) 서정민, 앞의 논문.

97) 이종묵, 앞의 논문(2007) 참조.

98) 임형택, 「17世紀 閨房小說의 成立과 倡善感義錄」, 『동방학지』 57(연세대학교 국학연구

함양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留遊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sup>99)</sup>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로 간접경험을 통한 지식 습득과 교양 함양을 의도했으리라 생각된다.

각종 지리서를 인용하여 지리 정보를 전달한 것 역시 간접적인 유람의 체험과 이를 통한 지식 및 교양 함양을 추구한 것으로 생각되며, 史書를 인용하여 역사 정보와 각종 사적에 대해 기술한 것도 지식의 전달과 함께 비슷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부연설명을 상세하게 뒷받침한 것 역시 독자의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한편 상식의 수준을 높여주는 교육의 한 방편이었을 것이다.<sup>100)</sup>

##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김직연의 연행록 『燕槎日錄』과 『연횡녹』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각 본의 특징을 구명하고 이를 통해 선행본을 고증하였다. 또한 각 본의 차이점을 통해 한문본에서 한글본으로의 번역이 여성 독자층을 배려한 측면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독자층이 가족에서 원근의 인척으로, 또 사대부여성 계층으로 확대되었으리라 추정하였다.

물론 이 글이 그간의 연행록 관련 연구를 뛰어넘는 대대적인 연구사적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한문본 연행록과 한글본 연행록의 관계 및 번역 양상, 또 한문본이 선행본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론을 뒤엎거나 획기적인 결론을 도출해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행록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실증적인 자료와 연구 성과는 현재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바 없다고 생각된다.

김직연의 연행록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문본과 한글본에서 드러나는 삽입 한시의 빈도수, 수식의 가감과 독자층을 염두에 둔 글쓰기 태도 등 현저하게 구별되는 텍스트의

---

원, 1988) 참조.

99) 주석 81) 참조.

100) 서정민은 그의 논문(「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3장에서 '삽입된 한시의 양상', '전문서적의 활용 및 교양의 간접체험', '주석의 가능' 등을 두루 살펴는데, 그 주된 목적을 여성 독자층의 교양과 지식 확충의 일환으로 보았다.

차이는 한문본 연행록과 한글본 연행록의 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타 연행록에서 찾아보기 힘든 구체적인 차이점을 통해, 한문본과 한글본 연행록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보다 깊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현존하는 연행록 중 한문본과 한글본이 병존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도 이 글에서 언급한 특징적 사안이 연구의 기본적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姜浩溥, 『상봉녹』.
- \_\_\_\_\_, 『桑蓬錄』.
- 金直淵, 『品山謾筆』.
- \_\_\_\_\_, 『燕槎日錄』.
- \_\_\_\_\_, 『연횡녹』.
- 金昌業, 『稼齋燕錄 연횡일기』.
- \_\_\_\_\_, 『老稼齋燕行日記』.
- 朴趾源, 『열하기』.
- \_\_\_\_\_, 『열하일기』.
- 徐有聞, 『戊午燕行錄』(한문본·한글본).
- 李商鳳, 『北轍錄』.
- \_\_\_\_\_, 『서원녹』.
- 洪大容, 『湛軒燕記』.
- \_\_\_\_\_, 『乙丙燕行錄』.

김근태, 「김직연의 『燕槎錄』과 『연횡녹』의 서술 방식 비교」. 제96차 대동한문학회 발표문, 2011.

\_\_\_\_\_, 「品山(金直淵)이 옮은 팔경시와 세시풍속시에 대하여」. 『의왕의 삶터와 밭자취』, 2004.

김덕수, 『朝鮮 文土와 明使臣의 酬唱과 그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27, 한국한문학회, 2001.

\_\_\_\_\_, 「택당 이식의 한시론과 택풍당비해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김명호, 「金永爵의 燕行과 『燕臺瓊瓜錄』」.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김영진, 「夫馬進著 燕行使と通信使」. 『東洋史研究』 67-4, 2009.

김직연 저, 신익철 역, 『燕槎日錄』. 『의왕향토사료관 번역총서』 1, 의왕향토사료관, 2011.

\_\_\_\_\_, 「燕行錄의 체계적 정리 및 연구 방법에 대한 試論」. 『대동한문학회지』 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김태준, 「『담헌연기』와 『을병연행록』 비교연구」. 『민족문화』 제11집, 1987.

朴周大 편저, 『縉紳八世譜』 文科編. 경인문화사, 1983.

서정민, 「삼강명행록의 교양서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 \_\_\_\_\_,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소재영·조규익, 「담헌연행록연구」. 『동방학지』 9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8.
-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
- 이종묵,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Diaglossia)」.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2007.
- \_\_\_\_\_, 「朝鮮時代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書誌學報』 26, 2002.
- 임기중·부마진, 『연행록전집』 일본소장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1.
- 임형택, 「17世紀 閨房小說의 成立과 倡善感義錄」. 『동방학지』 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 정훈식, 「홍대용의 연행록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주우진, 『洪大容의 『燕記』와 『乙丙燕行錄』比較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홍성구, 「중국학계의 연행록 연구」. 『대동한문학회지』 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 황문환, 「字訓謬解」. 『문헌과 해석』 3, 문헌과 해석, 1998.

## 국 문 요 약

이 글에서는 金直淵의 한문본·한글본 연행록을 저본으로 삼아 그 특징적 면모를 살피고 선행본을 고증하는 한편, 구체적인 독자층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발표된 연구를 참고하되 기존 연구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에서 따로 언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김직연의 연행록에만 그치지 않고 영역을 확장시켜 한문본·한글본 연행록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와 그 자료적 가치에 대해 궁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김직연의 연행록은 이미 기존에 『燕槎日錄』으로 소개된 바 있으나, 근래에 들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자료이다. 연행록 관련 연구가 재조명되고 있는 현 시점에 연행록 전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김직연의 연행록은 연행록의 한문본·한글본 비교연구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문본과 한글본에서 드러나는 삽입 한시의 빈도수, 수식의 가감과 독자층을 염두에 둔 글쓰기 태도 등 현저하게 구별되는 텍스트의 차이는 한문본 연행록과 한글본 연행록의 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타 연행록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문본과 한글본의 차이를 통해 연행록에 대한 이해에 보다 깊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존하는 연행록 중 한문본과 한글본이 병존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도 이 글에서 언급한 특징적 사안이 연구의 기본적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투고일 2011. 12. 20.

수정일 2012. 2. 10.

게재 확정일 2012. 2. 17.

주제어(keyword) 김직연(Kim, Jik-yeon), 연행록(Yeonhaengrok), 기행문학(Travel literature)

